

“수준 높은 테니스로 무더위 날리세요”

“진월국제테니스장에서 수준 높은 테니스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2018광주오픈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대회를 개최하는 강철성 광주시테니스협회장(61)은 “예년보다 더 실력이 좋은 선수들이 참가한다”며 “광주유니버시아드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진월테니스장에서 다시 한번 세계적인 선수들의 기량을 엿볼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8광주오픈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대회는 지난 2016년 창설돼 올해로 3번째 열린다.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진월국제테니스장에서 진행된다. 세계랭킹 111위 랍쿠마르 라마나탄(인도)과 182위 이토 타쿠마(일본) 등 100명의 외국 선수들과 이덕희, 정윤성, 정홍 등 국내 선수 30명 등 130명의 선수들이 대결을 펼친다.

강철성 회장은 “광주오픈은 단식 우승 포인트가 80점으로 선수들이 랭킹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중요한 대회”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시아게임에 출전하는 이덕희도 일주일 광주대회에 참가한 뒤 자카르타로 갈 예정이며 대표팀에서 탈락

■ 광주시테니스협회 강철성 회장

광주오픈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대회 개최 치어리더 공연·경품 추첨 등 이벤트 준비

하기는 했지만, 정윤성 역시 최근 실력이 일취월장해 멋진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올해로 세 번째 개최되는 챌린저대회지만 걱정은 역시 관중이다.

강 회장은 “세계남자프로테니스연맹에서 한국 대회를 받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관중이 많지 않다는 것”이라며 “서울에서 열리는 대회도 관중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데 광주도 마찬가지”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분에게 광주챌린저대회를 알리고, 즐겁게 경기를 보실 수 있도록 치어리더 공연, 경품이벤트 등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테니스협회는 ATP 사상 처음으로 준결승과 결승에서 치어리더 공연

을 펼친다. 조금은 적정일 수도 있는 관중석을 프로야구처럼 보다 활발하고 흥이 나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뿐만 아니라 TV 등 경품도 준비할 입장객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생중계 관계로 낮에 대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관중석에는 천막을 설치했다.

강 회장은 “경험과 흥보가 부족한 상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이들이 합심해 노력한 끝에 벌써 3번째 대회를 치르게 됐다”면서 “이번 대회가 광주는 물론 국내 테니스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TP챌린저투어는 서울, 부산, 김천에 이어 광주까지 국내에 4개 밖에 없다. 강 회장은 “처음 대회를 유치했을 때



여자대회와 남자대회를 함께 개최하기 위해 예산 5억 원이 필요했는데 2억 7,000만원 확보에 그쳐, 결국 남자대회만 개최하게 된 것이 아쉽다”면서 “지역은 물론 국내 선수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광주의 간판대회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진화 기자



광주대 항공기 체험교실 운영

여름 방학을 맞아 진로·전공체험에 나선 초등·고교생들이 7일 오후 광주대 학교 항공서비스학과 승무원 체험교실에서 김영진교수와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기내 서비스 체험을 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서대석 서구청장, 고3 수험생 격려

서대석 서구청장은 7일 오후 수능 D-100일을 맞아 고3 수험생 SNS 이벤트 행사에 참여한 광주여자고등학교 3학년4반을 찾아 학생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코레일 광주본부-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업무협약 취약계층 아동 해피트레인 확대 등 협력사업 추진

코레일 광주본부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사회적 가치 실현의 선도적 역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취약계층 아동 해피트레인 기회 확대 ▲아동지원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사회공헌 신규 사업 추진 등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이번 협약식에서는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해 오는 10

일 발간될 박석민 코레일 광주본부 영업처장의 저서 ‘기차에서 핀 수채화’의 인쇄 전액을 기부하기로 했다.

정구용 코레일 광주본부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역 사회와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코레일의 특화된 사회공헌 활동과 지속적인 나눔문화 실천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레일 광주본부는 2007년부터



복지사각지대 초등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등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하고 있으며 오는 9월 광주와 대구지역 소외계층 초등학생 60여명을 초청해 달빛교류를 주제로 해피트레인 기차여행을 추진 중이다. /김중찬 기자



고흥 지역사회 발돋움 교실 운영

고흥군은 최근 광주학생해양수련원에서 관내 취약계층 청소년 30여명과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동아리연합회 회원 10명이 멘토로 참여한 가운데 ‘2018 지역사회 발돋움 교실’을 운영했다. /고흥=진중언 기자



구례 e-비즈니스 리더양성과정 수료식

구례군은 지난 6일 농업기술센터에서 2018년 e-비즈니스 리더양성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e-비즈니스 리더양성과정은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농업인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 농산물 전자상거래 판매 활성화 등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실시했다.

지난 3월부터 총 20회에 걸쳐 SNS를 활용한 농장·농산물 홍보와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입점교육을 실시했으며 총 수

강 인원 28명 중 수업을 70% 이상 참석한 16명이 교육 수료를 하게 됐다.

박노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해야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농가소득이 직접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구례=김진석 기자



보성 스포츠체험 강좌 운영... 돌핀 스вим 체험

보성군은 최근 경남 거제시 일운면에 위치한 거제씨월드에서 관내 유·청소년 26명을 대상으로 2018년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를 열었다.

단기스포츠체험강좌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일환으로 강좌시설까지 거리가 멀거나 인근에 시설이 없어 강좌수가 이관한 스포츠강좌이용권 미수혜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날 학생들은 물속에 들어가서 돌고래를 만져보고 먹이도 주고 포옹도 하며 돌고래와 직접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

며 돌고래의 날렵한 몸에 의지해 수영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체험을 통해 참가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길 바라며 스포츠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스포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매달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해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사회통합·국민 행복을 견인하기 위한 사업이다. /보성=선상희 기자



광양 초·중학생 영어캠프 운영

광양시는 지난 6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인천광역시영어마을에서 ‘2018 광양시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광양시는 지난 2013년부터 명문 교육도시에 걸맞은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광양=정경화 기자



광주 81호 아너소사이어티 김우열 현대아미스 회장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억 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에 김우열 현대아미스 회장이 가입했다고 7일 밝혔다.

김 회장은 “폭염에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주모금회는 김 회장이 전달한 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에 김우열 현대아미스 회장이 가입했다고 7일 밝혔다.

한편, 아너소사이어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진행하고 있는 대표 모금사업으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 고액기부자 클럽이다.

/김중찬 기자

“섬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만들어야”

‘섬의 날’ 제정 일등공신 강봉룡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장

8월 8일은 ‘섬의 날’이다. 박지원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국가기념일로 확정됐다. 공식 기념행사는 2019년 8월 8일 거행한다.

섬의 날을 앞두고 국가기념일 제정에 힘을 보탠 강봉룡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장은 7일 “섬의 가치를 재발견해 섬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만들고 6차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원장은 “도서관문화연구원 출신기 교수가 2016년 신문기고 등을 통해 섬의 날 제정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방송토론회 등을 거쳐 공론화됐다”면서 “섬의 날은

세계 최초의 일로 우리나라 섬 정책의 획기적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근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서 섬은 고립의 공간, 천시의 대상이었다”면서 “조선시대 해양을 금지하는 ‘해금정책’, 섬에서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하는 ‘공도정책’이 장기간 시행됐고, 이런 역사적 관성이 오늘날까지 우리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섬이 국가정책의 대상이 된 것은 1986년 ‘도서개발촉진법’이 제정되면서부터다. 이 법에 따라 30년간 연륙·연도, 선착



장 시설 등이 확충되는 등 성과도 있었다고 강 원장은 분석했다.

강 원장은 “그동안 섬 개발정책이 섬을 낙후 오지로 인식해 시혜적 관점에서 이뤄져 주로 편의시설 확충에 집중돼 주민 삶의 질 개선에 효과가 크지 않았다”면서 “인구감소, 고령화, 난개발 피해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섬을 살리는 일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섬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관심의 범위를 ‘주민의 섬’에서 ‘국가의 섬’으로 확산, 전환시키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섬의 날 국가기

념일 제정은 획기적인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원장은 섬 정책 시행부처가 3원화 또는 다원화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무인도는 해양수산부, 유인도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반반씩 관할한다. 거기에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이 소관업무를 간헐적으로 관장한다. 섬 정책을 통일적으로 입안하고 체계적으로 실행에 옮길 싱크탱크와 컨트롤타워가 현재로서는 없다.

강 원장은 “목포대 도서관문화원은 국가 싱크탱크로서 가칭 ‘한국섬발전진흥원’을 목표로 설립할 것을 최초로 제안한 이후 관련기관의 노력으로 정부가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섬 연구기관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목표권에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포=강성우 기자